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Vol. 50 | 2022 Spring

SEES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Contents

PART 1. SEES HEADLINE — 01

- 『퇴임사: 정든 관악을 떠나며...』 | 이인성 교수
- 『신임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이상무 교수

PART 2. SEES PEOPLE — 06

동문칼럼

- 『중년의 지질학도, 적성을 찾다.』
| 이승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책임연구원

학생칼럼

-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
- 학부생 졸업후기
-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 연구실 탐방 행사 후기

PART 3. SEES CULTURE — 13

- 시로 읽는 지구환경 | 이창복 명예교수
-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 정해진 교수
- 학생회 행사 & 공지사항
- SEES EVENT

PART 4. SEES INSIDE — 16

SEES News

- 교수님 동정
- 동문소식
- 학부소식

4단계 BK21사업 소식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지질환경연구소
- 해양연구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학사일정

HEADLINE

퇴임사: 정든 관악을 떠나며....

이인성 교수



1997년 9월 서울대에 부임한 후 어느덧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때를 포함하면 26년 이상을 서울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새삼 빠른 시간의 흐름을 다시 느낍니다. 이렇게 모교에서 강의하고 또 동료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교내외의 여러 보직을 맡아 일하고 자연대 교수님들과 운동도 하고 등등 여러 행복했던 순간들이 제 기억을 스쳐 지나갑니다.

1983년 첨단 분석기술이 과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미국 대학 실험실에서 보내고 1994년도에 귀국하여 대전의 연구소에서 3년 정도를 근무한 후 본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 다니던 시절 열악한 국내 분석시설들을 돌이켜보고 지금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의 분석능력을 갖춘 국내 여러 대학들과 연구소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서울대로 유학 온 많은 외국 학생들은 아마도 한국의 교육과 연구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믿고, 또 본국이 한국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꿈꾸었던 선진과학 한국의 위상이 현재는 다소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자원지질학연구실은 광물자원과 환경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현황 연구 및 탐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미세먼지 관련한 한반도 및 주변국 기원물질들에 대하여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금속 및 비금속 광산들도 학부강의 관련 혹은 대학원 논문주제로 채택하여 야외조사를 진행하였고 남극을 비롯한 국외 광산 지역들도 조사와 탐사를 수행하였었습니다. 21세기 초 예일대의 Skinner 교수님이 예견했듯이 자원의 수요량과 종류는 변화할지라도 현대문명이 존재하는 한 자원의 지속적인 수요가 요구된다고 한 것처럼 Si의 존재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원의 공급 없이는 현재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원지질학연구실은 다른 연구실들보다 외국 유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1980년대부터 국내 광산업이 쇠퇴하고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총당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은 광산 관련 사업이 국가기간 산업이 되기 때문에 자원지질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많고 광산 관련 기업들도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많았고 외국 유학생들 중 자원연구실을 거쳐간 학자들은 중국, 몽골, 미얀마, 콩고, 태국, 인도네시아, 이란 국적의 학자들로 현재도 이들 졸업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학문적인 교류를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광물자원과 환경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멀리 남극 지역에 대해서도 과제 수행을 통하여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주변 지역을 연구함으로써 자원 매장 포텐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환경 관련 지표수의 다중 황동위요소 분석연구도 수행하였고 남극세종기지는 시료채취와 야외탐사를 위하여 남극 하계 탐험대의 일환으로 남극을 방문하여 세종기지 주변 및 브랜스필드해협 연구선 승선을 통한 시료 채취 및 야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구물리학전공 학생인 전재규 군이 사고로 순직한 직후라 늘 이러한 오지의 탐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한 번도 방문하기 힘든 남극 지역을 3회나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주어진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공동 연구의 기회를 주신 극지연구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 국내 광업회사의 요청으로 방문하였던 아프리카의 카메룬 지역에 대한 자원 탐사도 매우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황열병 예방주사도 맞고 말라리아 예방약도 준비하여 매일 한 알씩 먹으면서 탐사여행을 하였으나 일단은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1인용 모기장을 매일 호텔 침대 위에 치고 잤던 기억과 주변의 카메룬 주민들 7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 일체의 접촉을 조심하며 지냈으나, 현지에서의 이동 시 오토바이 택시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거의 목숨을 걸고 위험지역들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정부군들이 지키고는 있으나 늘 외국인들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거의 숨어서 현지 가이드와 붙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해외 자원개발의 주력지역의 일환으로 아프리카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때라 민간회사들도 카메룬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시도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몽골 지역은 제가 1999년도에 외무부의 KOICA 원조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몽골 지역의 탐사 자문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몽골 학생들이 박사과정으로 자원연구실에 유학 오면서 몽골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 내 전 인구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는 몽골의 수도로 현재 몽골 출신 서울대 졸업생들은 몽골국립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면적도 상당히 넓지만 분포하고 있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규모가 커서 향후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관계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았던 과목들은 자원지질학을 비롯하여 광물과 암석, 지구시스템과학 및 실험,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 등의 과목들을 들 수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관심을 가지고 담당하였던 사회봉사 1, 2 과목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 과목이 서울대에 개설된 것은 2007년도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당시 우리 학부의 이상목 교수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학생들과 야외조사 나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또 학생 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났었던 이후라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이상목 교수님의 교육 및 연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이 배정되어서 조금이나마 강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가능할 때마다 이 과목을 자원하여 맡았었는데 주로 장애인반을 맡아서 관리했었고, 때때로 장애인복지기관들(실로암, 까리파스복지관, 보라매병원 등)을 방문하여 복지사들도 만나고 학생들 봉사상황도 점검하곤 했습니다. 저는 지환부 학생들도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여 장애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편견도 없애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연구실에서 주요 연구의 대상과 주제로 채택하였던 지역 중에는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년에 6개월 정도 자카르타와 광산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인구가 2억 7천만 명에 달하고 국토의 면적도 넓고, 매우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나 태양열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니켈자원은 솔라웨이 섬에 풍부히 부존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도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금을 비롯한 여러 광물자원과 석탄과 같은 에너지자원들도 풍부히 부존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 필요한 자원확보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975년도에 서울대에 학부생으로 처음 입학한 이래 이번 퇴임할 때까지 유학생생활을 제외하고 약 36년간의 세월을 서울대 캠퍼스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퇴임 후에는 3년 전쯤 준비하였던 자원 관련 컨설팅 회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던 일들과는 많이 다른 일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모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훌륭한 동료 교수님, 학부의 헌신적인 직원들, 조교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임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상무 교수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 봄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조교수로 함께 하게 된 이상무입니다. 전공은 대기복사/위성기상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07학번)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 박사후연구원, BK21플러스 사업단에서 연구 조교수로서 극 지역 기후변화 감시 및 탐지를 위한 인공위성 원격탐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전기공학부로 자리를 옮겨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 교원으로 있으며, 위성 자료를 기상 및 기후모델에 동화하기 위한 해빙, 해양, 대기복사전달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교수 직함을 한곳에서 모두 갖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와 함께한 만큼 그리고

함께할 만큼, 학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감동이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원으로서 학생, 연구진, 직원, 교수진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교수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학생을 위해, 학문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학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3. 교수님의 전공 연구 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제 전공은 대기복사학/위성기상학(Atmospheric Radiation/Satellite Meteorology)입니다. 말 그대로 대기복사학을 토대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전자기파(빛)를 기상학에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학문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세부 학문분야가 있지만, 근본이 되는 분야는 복사전달모델링입니다. 복사전달모델링은 지구 및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구의 매질(예: 지표, 해양, 대기)에서 어떻게 흡수/방출, 반사/산란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분야입니다. 그 외에도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전자기파를 지구환경변수로 복원하는 인공위성 원격탐사 분야, 관측 전자기파를 수치예보모델에 동화시킴으로써 날씨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는 위성자료동화 분야, 생산된 위성기반 지구환경변수를 분석하는 위성자료분석 분야 또한 위성기상학에서 중요한 세부 학문입니다.

대기복사/위성기상학은 모든 세부 학문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만, 복사전달모델링이 선행되어야만 나머지 세부 학문분야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기초를 복사전달모델링에 놓고, 위에서 언급한 세부 분야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목표는 전 파장을 아우르는, 모든 지구환경변수의 고려가 가능한 복사전달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복사전달모델링이 어려운 분야이고, 일정 수준의 수학과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기과학을 위한 복사전달모델링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학생, 연구진, 교수진들과 함께라면 못 이룰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4~5년간은 극지 해빙, 대기 중의 구름과 이와 관련된 강수 현상을 복원하고 복사전달모델링을 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 학부 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학년 때는 활기차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학우들처럼 술자리를 즐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미팅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지구환경과학부 밴드 소모임이었던 '유체이탈', '환청'에서 6~7년 동안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쳤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공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5-1동 과방, 전산실과 501동 5층 대기도서관에서 동기, 선배님들과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5.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인가요?

박사학위 도중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저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6. 연구 외에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근력 운동, 등산, 여행 및 기타 스포츠를 즐겼었습니다. 미국 생활 중 코로나 범유행이 선언되고 이후에는 책 읽기, 달리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7. 연구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연구를 수행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올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의 스트레스는 내가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약간의 게으름과 찰나의 나태함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글귀를 보고 나서는 하루 휴가를 내고 주어진 하루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냅니다. 가끔 약간의 나태함과 게으름 뒤에 해결책이 불현듯 생각나기도 합니다, 휴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커피 한 잔에 몽상에 잠겨 짧은 시를 쓰곤 합니다.

8. 만약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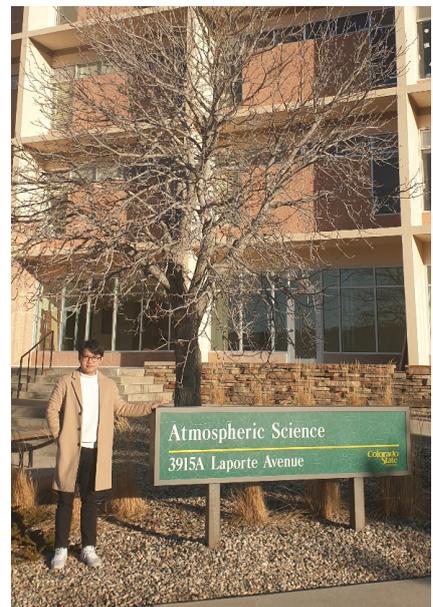
항상 교수(과학자)를 꿈꿔왔었기 때문에 '교수(과학자)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헬스 트레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이야 운동을 거의 못하고 과거에 근육이 있던 자리가 지방으로 채워져 있지만, 5~6년 전에는 매일 세 시간 이상 운동하며 닭가슴살, 풀떼기만 먹어도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9. 꿈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세요?

사람은 본래 조금씩 부족한 존재이기에,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항상 조금씩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다음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000000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행복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문칼럼

중년의 지질학도, 적성을 찾다.

이승배 책임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배운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배운 것을 일반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파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 즉 지구과학의 대중화는 우리의 학문 분야와 결국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보람찬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학부 야외 수업 중에 직접 발견한 화석에 매료되어 지구시스템과학(지질학)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인기 있는, 소위 밥벌이가 잘 될 만한 공부를 하는 게 어떨겠냐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저의 고민은 '대학원에서 암석을 연구할 것인가 화석을 연구할 것인가'였습니다. 결국 대학원에서는 고생대 전기의 극피동물과 삼엽충을 소재로 고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수 억 년 전 생물의 흔적은 신기하기만 했고, 화석과 암석을 통해 당시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신종 화석을 발견했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고, 저의 연구를 해외 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부뒸했습니다.



박사과정 중 중국 산동에서 캄브리아기 삼엽충을 탐사하던 모습

사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직업은 국립과학관에서 자연사 관련 전시나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공과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어서 운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질서나 전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과정들은 제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직업과 직장의 괴리를 실감한 것이죠. 화석을 찾고 연구하던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또 한 번 운 좋게도 전공 관련 연구소로 이직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부서는 우리나라 공식 지질도를 만드는 연구센터였고, 돌과 화석,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제게 딱 알맞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 조사 지역에는 화석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방향 속에서 저는 또 화석을 선택했습니다. 화석이 많고, 화석을 연구할 수 있는 곳, 지질박물관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전시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과 직장을 바뀌오는 동안 바뀌지 않은 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암석과 화석 보기를 즐거워하며, 제가 공부한 화석이나 암석,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지구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활동들에서 보람과 에너지를 느껴왔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어린이 신문에 화석 이야기를 연재하거나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강의도 하고, 지자체에서 주최한 화석축제에서 시민들에게 고생대 지층과 화석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화석과 지구의 역사에 대한 안내나 강의를 많이 했고요. 지질조사 업무 중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암석과 화석의 다양성, 지질도, 한반도의 지질 역사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지질박물관에서는 삼엽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 화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하고, 철광석을 직접 깎아 악기를 만들어 누구나 두드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암석에 호기심을 갖게 하려는 책도 한 편 썼고요. 이제 저에게는 목표가 뚜렷해 졌습니다. 직장도 직업도 바뀌더라도 사람들이 화석이나 돌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일을 꾸준히 하기로요.



웹툰 스타일의 캄브리아기 바다 복원도와 어우러지게 전시한 무척추동물 화석들(좌), 직접 설계하고 암석을 가공하여 제작한 철광석 글로켄슈필(우)

갈수록 화산, 지진, 싱크홀, 쓰나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지구과학과 관련된 사회 이슈가 빈발하고 있죠. 지구과학의 학문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관련 전공자로서 자부심은 커집니다.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는 데 비해 일반인은 물론 언론기자들마저도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만하지요. 학문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지구과학 교과목은 기피 대상이고, 화석과 돌맹이를 좋아하던 어린이들은 학업에 치여 관심을 이어가지 못하니깐요.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떠도는 세상에서는 관심과 흥미만 있다면 누구나 아마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해지면 재밌고, 재밌으면 알고 싶어지죠. 지구과학에 아마추어가 많아지면 우리 학문의 저변도 넓어지고,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되는 첫 단추를 끼워 주는 것, 사람들이 다시 하늘, 땅, 바다와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순수한 연구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구과학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큼니다. 반짝이는 돌은 널려있고, 예쁘고 신기한 구름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으며, 바다낚시에는 조석과 해류의 원리가 있으니깐요. 여러분이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나 연구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에게 내가 배운 것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저처럼 언젠가 지구과학 대중화에서 적성을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깐요.

Profile

- 1996.03. - 2000.02.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지구시스템전공 (이학사)
- 2000.03. - 2003.02.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이학석사/고생물학)
- 2003.03. - 2008.08.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이학박사/고생물학)
- 2008.09. - 2009.08.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BK21 박사후연구원)
- 2009.10. - 2010.08. ● School of Environmental and Rural Science, University of New England, Australia (박사후연구원)
- 2010.09. - 2014.09. ●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분야 담당(일반계약직/환경연구사)
- 2014.10. - 2017.12.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조사연구실 선임연구원
- 2018.01. - 2018.09.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선임연구원
- 2018.10. - 2022.01.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2020.07.~ 책임연구원)
- 2022.02. - 현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책임연구원

학생칼럼 _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

오정민 | 학사과정 20학번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제22대 학생회 <SEEStematic>에서 정학생회장을 맡게 된 20학번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입춘을 지나 우수를 맞이하는 요즘, 한 살 더 먹은 나이가 더는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곤 합니다.

새해라는 단어가 멀어지며,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고민이 다가오곤 합니다. 어릴 적에는 두루뭉술하게 ‘멋진 삶을 살 거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와 같은 꿈을 꾸며 지냈지만 이제 제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무게는 저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묻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출판 업무, 순수한 ‘앎’에 대한 열망, 즐기는 삶을 살고 싶은 ‘Homo Ludens’로서의 자아, 대표자로서의 무게. 이 모든 것은 저를 규정하는 일부로 실존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 며칠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대표자로서의 무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꾸고 싶던, 또는 하고 싶던 일들을 하기 위해 맡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실과 소통을 하며 ‘안 되는 것들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과거의 제가 바라본다면, 현실에 안주한다며 비난할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조금은 바뀌고 등글어지는 제 모습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스스로 가진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대표자로서 필요한 성숙한 자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자리를 맡은 지도 어언 4달이 되어갑니다. 현재 자연과학대학에는 학생회장단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한 각과의 학생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는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는 자연과학대학 대표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행사에 2부 패널로 참여하여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1월 말부터는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어 자연대 전반의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새터 기획단과 소통하며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준비를 도와주었으며, 현재는 ‘쓰담쓰담, 청춘을 응원해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무나도 큰 무게들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가온 것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이 끝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떠오르는 것을 숨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체계는 비상한 머리로, 대중을 감복시킬 화술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낼 협상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제가 동기들, 행정실 선생님들,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면이 한정적인 것이 아쉬워 한 분씩 모두 감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몇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교수님들과 행정실 선생님들께. 언제나 학부의 일에 저 이상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제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준 학부장님께서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열린 자세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깊은 통찰력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주셔서 미숙한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장정란 사무장님께서서는 행정실을 찾아가갈 때마다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주시고,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성미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과에 있어 도움이 될 법한 조언을 주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이강준 선생님과 김종원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과 내에서 기획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덕분에 조금은 미숙하고 촉박할 수 있었던 저의 사업 진행들이 항상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실 탐방 행사 진행 당시 전향적인 자세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실 구성원분들, 그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학부 학우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장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두 학우가 있습니다. 부학생회장 직을 맡고 계시는 김세직 학우님, 홍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소정 학우님입니다. 제 성격상 사업을 크게 벌이는 일들이 잦았는데, 두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 친구는 제가 학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조언자로서 역할도 서슴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회 집행부를 뜬금없이 만들었을 때 이에 호응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김도연, 모영훈, 오지현, 유형준, 윤다연, 이에본, 이효령, 이희태, 조원준 학우님, 22학번 새내기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락치 사업에 도움을 준 심규원, 오지현, 이현지 학우님, OT TF로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김도연, 김동화, 김영옥, 김진홍, 모영훈, 유형준, 윤다연, 이에본, 이효령, 이희태, 장근혁, 조원준 학우님까지.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저희 학생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전대 학생회장이자 이번 새터 기획단장을 맡아준 김택인 학우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책이 직책이었던 만큼, 그리고 내부적인 사정상 때로는 의견이 충돌할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님께서 22학번 새내기 맞이 행사를, 저희 과 학생들의 학생사회를, 나아가 자연대 전체의 학생사회를 진일보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 언급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레터 전체를 다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지면이 좁은 만큼 나머지 분들께 드릴 감사는 개인적으로 품고 있다가, 만나서 얼굴을 보며 드리겠다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연대는 보결단위이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우에게 투표 받아 온 것이 아닌 만큼 대표성이 없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연대 운영위원회 내에서 제가 가진 의결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와 <SEEStematic>은 계속해서 달려 나갈 것입니다. 공약을 드린 사항 가운데 과 학생회 집행부의 경우 당선 직후 창설하였고, '지환부 축제'를 비롯하여 과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홍보국 내에서 과의 공식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eTL에 새로운 학기의 과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개강인 걸까요. 여러분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한 학기가 되길 바라며, 이 즈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칼럼 _ 학부생 졸업후기

학부생 졸업후기

이지훈 | 학사과정 18학번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졸업을 앞둔 지구환경과학부 이지훈입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와 열심히 음주가무를 즐기고, 시험기간 때는 동기들과 머리를 싸매며 밤새 공부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 생각하니 실감이 안 납니다. 매년 즐겁게 공부하던 지질 공부를 멈추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러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만큼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보냈던 4년은 저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기쁨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돌'을 좋아했던 저는 지질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고서 정말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지질학도라는 꿈을 키워갔고, 그렇게 지구환경과학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지구환경과학부에서의 학업 생활은 기쁨과 동시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질 관련 이론 수업을 통해 제가 원하는 지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탐닉할 수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보고 돌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풍부한 실습 및 야외 조사 시간은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지수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있는 학부의 명성에 걸맞게, 엄청난 학업량과 어려운 수업 내용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시험을 위해 일주일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문제를 풀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웃음). 그렇지만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동기들과 함께 토론하며 버텨온 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찬양만을 늘어놓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구환경과학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단순히 학업 활동을 하던 학도의 시점에서 벗어나 연구를 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학자의 길에 호기심이 들어서 2학년 때 처음 학부 인턴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만든 박편으로 현미경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분석 보조를 하면서 다양한 분석 장비를 접해보면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연구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막연히 대학에 들어온 뒤 '내 미래는 오로지 지질학자다!'라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학업과 인턴만을 하며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꿈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군에 갈 때도 '전문연구요원을 무조건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과 피로감이 쌓였고, 그로 인해 확신에 금이 가면서 4학년 때는 방향을 하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안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번 아웃'이 온 것입니다. 번 아웃이 온 뒤 의미 없는 생활만을 반복하다 부모님, 교수님, 대학원 선배님들 등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졸업 후 바로 대학원을 가지 않고 군 복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졸업 논문과 함께 동계 인턴도 마음 놓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4년간 학부 생활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과 연구실을 들락날락하며 집처럼 지냈던 25-1동, 밤샘 공부를 하다가 야식을 먹으러 동기들과 사회대 건물 편의점으로 걸어가던 차갑지만 따뜻했던 길거리 등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마음 깊숙이 담아놓아 봅니다. 저에게 많은 경험과 행복을 주었던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님, 동기, 선배님, 행정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후배님들에게는 공부하다 힘들면 가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님, 동기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항상 지원부에서 사진을 찍으며 하던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지원부, 파이팅!(팔 한쪽을 앞으로 내밀며)'

학생칼럼 _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김도형 박사 | 석박통합과정 15학번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퇴적학 연구실의 김도형입니다. 2015년 3월에 석박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최경식 교수님의 지도 아래 올해 2월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동적인 연안을 공부하기 위하여 북극부터 동남아까지 북반구 해안을 누비며 다양한 환경에서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뜻깊고 큰 상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여 과분하다는 생각이 크지만 앞으로 더 공부하고 정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안의 형태와 변화무쌍한 연안 환경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하고, 가끔은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연안 퇴적 환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간대는 해양 환경과 육상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지역으로 지구상 그 어느 환경보다 민감하고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전 욕망을 자극하였고,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직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geomorphic changes and sedimentary processes in the fluvial-marine transition zone from the Arctic to Sub-equator'라는 제목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다양한 특성의 조간대에서 퇴적물 거동을 포함한 형태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각각 다른 시공간적인 규모에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변화 양상을 해석하였습니다. 동시에, 물리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을 해석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와 프로세스를 규명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퇴적 환경 변화 양상과 유발 프로세스 규명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구분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증대되는 인위적인 교란에 대응하는 연안 환경의 적응 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연안 환경 보호, 복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학문적으로 미성숙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연구자로서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처음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의 자신감과 열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나가 발전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 롤프 메르클레는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환부 학우분들은 모두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다면 학위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야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졸업이라는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 과정 중에는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즐기는 자세로 어려운 시간을 대한다면 결국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학우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하며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낱아주시고 길러주신 최경식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실수와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함께 깃발을 누비며 힘든 일,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연구실 동료들이 있었기에 여러 고난과 고비를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환부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칼럼 _ 연구실 탐방 행사 후기

연구실을 돌아보며

김진홍 | 학사과정 20학번



어렸을 때 책과 미디어를 통해 본 교수와 연구자들의 모습은 멋있었고 신비로움 그 자체이었습니다. 단순히 멋에 홀린 것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의 꿈은 교수가 되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에 많은 불만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공부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로 그저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끝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대면 연구실 소개 행사는 연구자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 석박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입시공부만 하면서 학문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했던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그분들에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책과 미디어에서 접했던 연구자분들의 멋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학문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와 생각에서 나타나는 멋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실을 돌아보면서 연구자의 다른 모습과 연구실의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대학원생분들, 연구자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24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서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딱딱한 방식대로 공부하고 생활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계획된 시간 말고도 매우 유동적으로 본인이 시간을 조정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실의 분위기도 제가 가본 곳만 해도 분위기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에 맞는 연구실을 찾아서 즐겁게 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이 연구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후기글을 마치며 만약 제가 연구자가 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만의 호기심을 위해 끝없는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호기심을 충족시킬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후속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자기관리를 위해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빠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로 읽는 지구환경

조수는 차오르고, 조수는 내려간다

헨리 와즈워스 롱펠로우 (1807~1882)

조수(潮水)는 차오르고, 조수는 내려간다.
 어스름이 짙어지고, 물새가 운다.
 축축한 갈색 모래 해변을 따라
 나그네는 마을로 길을 재촉한다.
 그리고 조수는 차오르고, 조수는 내려간다.

어둠은 지붕과 담 위에 내려앉고
 그리고 바다는, 어둠 속의 바다는 부른다.
 잔잔한 파도는 부드럽고 흰 손으로
 모래 위의 발자국을 지운다.
 그리고 조수는 차오르고, 조수는 내려간다.

먼동이 튼다. 마구간 말들은
 마부의 부름에 발 구르며 운다.
 낮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나그네는
 두 번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조수는 차오르고, 조수는 내려간다.

조석(潮汐, tide) 또는 조수(潮水)는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일컫으며, 하루에 두 번 씩 (곳에 따라서는 한번) 규칙적으로 오르내린다. 그래서 조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자연의 질서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인생이 있다. 자연의 질서 속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그가 가고나면 그의 자취 또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바닷가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느끼는 곳이며,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다 검허하게 되돌아보게 된다.

〈2014년 3월, 이창복 명예교수〉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음식

- A 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기를 좋아하나요?
- B 고기는 물불 안가리고 다 좋아해요~~
- A 물불 안가린다고요?
- B 네... 물고기, 불고기 다 좋아해요^^ - hj

한 말씀 더 물고기, 불고기, 물불 고기^^



호랑이의 생태

호랑이 해... 자연스러운 자연문제
 선생님, "호랑이는 초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육식동물요"라고 했는데...
 엉뚱이만.. "초식동물요, 떡을 먹고 살잖아요^^" - hj

한 말씀 더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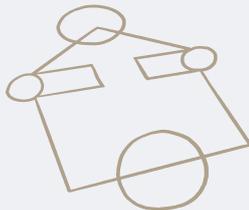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떡장수 할머니'에서는 초식동물^^



문어와 오징어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문어였지요. 절대 문어 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오징어라네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 최고가 된
 다음부터는요^^ - hj

한 말씀 더 이 세상 모든 게임을
 장악했네요^^



한류와 해양학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네요...
 한류에 대하여 잘 알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까요?
 답은 해양학이에요~~
 해양학 시간에 한류, 난류를 잘 가르쳐 주거든요^^ - hj

한 말씀 더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한류,
 전 세계 바다로 흐른다...



학생회 공지

2022년 1학기 학생회 행사	3월	• 2차 지환부 신입생 OT, 생활조 활동
	4월	• 생활조 발표식
	5월	• 오픈랩 행사

※ 행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hoto Zone

제1회 Planet A 온라인 해커톤 시상식

2021.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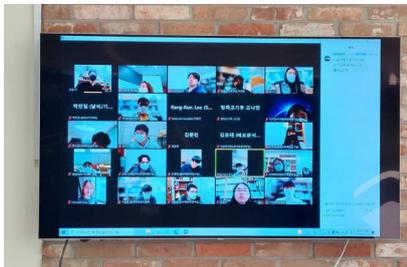
2022년도 신년하례식

2022. 1. 4.



대학원생 대표 간담회

2022. 1. 13.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2022. 2. 25.



대면수업 전면 재개

2022. 3.



SEES NEWS

교수님 동정

· 수상소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김상우 교수님께서 지난 2021년 12월 22일 전지구 기후변화 인자들의 융합정보 고도화 및 서비스 체계 구축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그리고 미래변화 예측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도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되었으며,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김종성 교수의 '해양 환경내 잔류성 독성물질의 잠재 독성 예측가능한 생-물리 연계 모델의 개발' 연구가 유해동물의 유해물질 관리 및 신규물질 독성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 교수임용/승진/선출소식



이인성 교수님께서 2022년 2월 28일 자로 정년에 이르셨습니다. 이인성 교수님께서서는 자원지질학분야를 연구하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무 교수님께서 2022년 3월 1일 자로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위성기상학입니다.



이현우 교수님께서 2022년 3월 1일 자로 부교수로 승진되었습니다.

· 초청강연



김종성 교수

2021. 9. 8. **Institute of Marine Biology, Shantou University**

The Yellow Sea Coastal Ecosystem Study: Overview and Future Challenge (국외 초청강연)

2021. 9. 30. **한국해양한림원/한국해양 한림원 창립심포지엄**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내 기초강연)

2021. 10. 27. **한국해양한림원/한국해양 한림원 제1회 정기심포지엄**

세계 자연유산, 한국 갯벌의 가치 (국내 기초강연)

2021. 12. 7. **해양수산부/블루카본 탄소 흡수원 국제인증 전략 포럼**

세계 자연유산, 한국 갯벌의 가치와 우수성 (국내 기초강연)

2021. 12. 14. **한국연구재단/2021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연례성과교류회**

Rethinking Toxicology: Transition from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Observation to Analytical Prediction of Bio-physical Communication (국내 기초강연)

2021. 12. 7. **서울대학교/The 6th Korea-China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and Ecological Safety (YES 2021)**

Overview of Korean tidal flats, Getbol, as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국외학회 기초강연)

2021. 12. 14.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diversity, Ecology and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BECoME-2022)**

Marine Biodiversity in Korea: A Review of Macrozoobenthic Assemblages and Distributions (국외학회 기초강연)



이성근 교수

2021. 09. 23. **Glasses and melts under compression: Insights from solid-state NMR**

International Workshop on "Development of multi anvil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to Earth and materials sciences", Germany,

2021. 11. 23. **Amorphous oxides beyond megabar pressures**

10th Asian Conference on High Pressure Research, Seoul

동문소식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의 노준성 박사 (2020년 졸업, 지도교수: 김종성)가 2022년 3월 1일 자로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 간융합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UCLA 대학 Earth, Planetary & Space Sciences 학과의 문슬기 교수(2004년 2월 학사, 2006년 2월 석사, 지도교수: 허영숙)가 Earth System Science 분야에서 2022 Sloan Research Fellow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정동주 박사 (2006년 2월 졸업, 지도교수: 김규범)가 2022년 3월 1일 자로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학부소식

이름	연구실	수여기관	주제(논문)명	내용
 강희창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	한국조류학회	혼합영양성 외편모류들의 글로벌 우점 전략	2021년 추계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4단계 BK21 사업 대학원혁신사업단		BK21 제3회 콜로키움 우수대학원생 수상
 김가영	기후물리실험실	한국대기환경학회	우리나라 권역별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 및 기상학적 원인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제1회 미세먼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
 김보현	고생물학연구실	Society of Vertebrate Paleontology	A relationship between eggshell thickness and microstructure to show a possible mechanism for hatching of thick-shelled dinosaur egg	The 81st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Vertebrate Paleontology에서 우리나라 학생으로는 최초로 Colbert Prize (대학원생 최우수 포스터상에 해당) 수상
 김도형	해양지질퇴적학연구실	자연과학대학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geomorphic changes and sedimentary processes in the fluvial-marine transition zone from the Arctic to Sub-equator	2021년도 2학기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
 김범기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Spatiotemporal variation of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EPS) associated with microphytobenthos of tidal flats, Korea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cientist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이름	연구실	수여기관	주제(논문)명	내용
 김정수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	Korea-China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and Ecological Safety	Feeding ecology of limpets (Subclass: Patellogastropoda) in the rocky intertidal zone of three Korean islands	2021년 YES 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 수상
 문승주	대류/도시기상 연구실	한국기상학회	High-dimensional Lorenz systems, atmospheric predictability, and data assimilation	2021년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박경주	대류/도시기상 연구실	한국기상학회		한국기상학회장상 수상
 박신영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Evaluation of ecotoxicity in the sediment of the Yellow and Bohai seas and confirmed effect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cientist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박준용	지구물리연구실	대한지질학회	Earthquake source properties and epicentral relocation with Lg-wave cross correlation of 2021 ML4.6 Gunsan basin earthquake in Yellow Sea, South Korea	2021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Earthquake source properties of 2021 ML 4.6 offshore Gunsan earthquake in Yellow Sea: Preliminary results	2021 지구물리·물리탐사 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학생 우수 논문상 수상
 박진영	고생물학연구실	Scientific Reports	A new ankylosaurid from the Upper Cretaceous Nemegt Formation of Mongolia and implications for paleoecology of armoured dinosaurs	2021년 총 6,595회 다운로드 되어 Scientific Reports 저널의 Top 100 Earth Science 논문으로 선정
 박창현	날씨/기후역학 실험실	한국기상학회	Relationship between the QBO and Surface Air Temperature in the Korean Peninsula	2021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서민성	지구물리연구실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Measurement of broadband seismometer orientation based on P-wave polarization: application to permanent and dense temporary seismic arrays in South Korea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2021 봄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서호중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	한국해양학회	Rare earth elements in the East Sea (Japan Sea): Distributions, behaviors, and applications	2021 한국해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분과별 우수 논문상 (화학) 수상
 안승범	퇴적지질학 연구실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상 수상
 유정연	화산학/휘발성 성분연구실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장상 수상
		대한지질공학회		유망지질공학도상 (대한지질공학회장상) 수상

이름	연구실	수여기관	주제(논문)명	내용
 이성진	고생물학연구실	대한지질학회	First troodontid specimen (Dinosauria: Theropoda) from the Upper Cretaceous Baruungoyot Formation of Mongolia	2021년도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논문 발표자상 수상
 이인옥	해양저서 생태학연구실	Korea-China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and Ecological Safety	Glacier retreat changes the benthic trophic dynamics in Marian Cove, Antarctica	2021년 YES 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 수상
 이종민	해양저서 생태학연구실	Korea-China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and Ecological Safety	Estimation of sedimentary organic carbon stocks and sequestration rates in Korean tidal flat using field survey combined with remote sensing technology	2021년 YES 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 수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The Effect of Pile driving noise on plasma osmolality in juvenile <i>Lateolabrax japonicus</i> , <i>Sebastes schlegelii</i> and <i>Platichthys stellatus</i>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cientist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이지인	해양암석지구화학연구실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학회장상 수상
 전예준	날씨/기후역학 실험실	한국기상학회	웁몰 지역 해수면온도가 겨울철 유라시아 지표 기온 감소 추세에 미치는 영향	2021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조주희	해양지질 퇴적학연구실	한국해양학회	Tidal and seasonal river-flood controls on morphologic evolution and stratigraphic architecture of inshore tidal flat in the macrotidal Sittaung River estuary, Myanmar	2021 한국 추계 해양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진가영	해양저서 생태학연구실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The Effect of Pile driving noise on plasma osmolality in Juvenile <i>Lateolabrax japonicus</i> , <i>Sebastes schlegelii</i> and <i>Platichthys stellatus</i>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cientist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최승순	지체구조 물리학연구실	MINERALS (국제학술지)	Twin induced reduction of seismic anisotropy in lawsonite blueschist	국제학술지 MINERALS 2020-2021 Best Cover Award 수상
 한상우	지구물리연구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 지질자원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AI 모형개발 (지정데이터) 부분 우수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상) 수상
 현동규	기후물리실험실	한국기상학회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태풍에 동반된 강수량의 보정	2021년 한국기상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4단계 BK21사업 소식

우수연구활동 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2021년 하반기 동안 SCI(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출판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연구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 27명(석사: 7명, 박사 20명)에게 연구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은 KIRD 이력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를 통해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 검토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1회 의무수강 하여야 합니다.

신진연구인력 현황

우리 교육연구단은 여러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진 연구인력 현황

이름	직급	전공	임용기간
김수현	연수연구원	대기과학	2020. 11. 01. - 2022. 10. 31.
이정현	연수연구원	해양생태학	2020. 11. 01. - 2022. 10. 31.
보정홍	연수연구원	지구자원공학	2020. 12. 17. - 2022. 11. 30.
Hongda Hao	연수연구원	지구화학	2022. 01. 01. - 2022. 12. 31.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 대기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김중진	연구원	2022. 03. 01. - 2022. 08. 31.

| 지질환경연구소 |

● 지질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성명	직책	임용기간
김원영	책임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이인성	책임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박 용	선임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이상현	선임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성명	직책	임용기간
이성순	선임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정세진	선임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천화성	선임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권진중	연수연구원	2021. 09. 01. - 2023. 02. 28.
김재연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박재현	연수연구원	2021. 09. 01. - 2023. 02. 28.
송정훈	연수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이정재	연수연구원	2021. 05. 14. - 2023. 04. 30.
이화주	연수연구원	2022. 01. 01. - 2022. 08. 31.
임호빈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Cristiano Padalino Galeazzi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Shujia Li	연수연구원	2022. 01. 01. - 2023. 12. 31.
Syed Azharuddin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2. 08. 15.
김준하	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금윤재	연구원	2021. 11. 01. - 2022. 10. 31.
Kajal Kumari	연구원	2022. 04. 01. - 2022. 08. 31.
김지은	보조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박송희	보조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박재영	보조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손찬우	보조연구원	2021. 12. 15. - 2022. 03. 31.
이철민	보조연구원	2022. 01. 01. - 2022. 12. 31.
황정화	보조연구원	2021. 06. 15. - 2022. 06. 14.

| 해양연구소 |

○ 해양연구소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권형규	선임연구원	2022. 11. 01. - 2023. 10. 31.
김도형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서준형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한희준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윤서준	연수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JEANVOINE AURELIEN MARIE DEL	연수연구원	2021. 12. 16. - 2022. 12. 15.
함도식	직원연구원	2022. 03. 01. - 2023. 02. 28.
이수정	연구원	2022. 11. 01. - 2023. 10. 31.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 학술대회 일정 |

○ 2022년 한국기상학회 분과 봄학술대회 개최 안내

분과	개최일	장소
관측 및 예보·대기물리	2022. 4. 21.(목) - 4. 22.(금)	제주 국립기상과학원
기후·환경 및 응용기상	기후: 2022. 4. 27.(수) - 4. 29.(금)	부산 벅스코(BEXCO)
	환경 및 응용기상: 2022. 4. 28.(목) - 4. 29.(금)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2022. 5. 2.(월) - 5. 3.(화)	경주 소노벨콘도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학회 홈페이지 kome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 6. 2.(목) - 6. 4.(토)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학회 홈페이지 ksocea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춘계 지질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 6. 22.(수) - 6. 23.(목)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세한 사항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홈페이지 kseeg.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일정 |

○ 2022학년도 1학기 SEES COLLOQUIUM 일정

- 담당교수 : 이현우
- 일시 : 매주 수요일 12시
- 장소 : 25-1동 국제회의실 (Zoom을 통한 비대면 진행 병행)

일정	연사	소속	
3월	2	이인성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6	과학커뮤니케이터 제도	안필과학
	23	김형준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30	김창환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4월	6	윤진호 교수	GIST 지구환경공학부
	13	정재혁 사무관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20	이선복 교수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7	이상무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5월	4	송만호 이사장	유미과학재단
	11	안현선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김태진 교수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25	이정모 관장	국립과천과학관
6월	8	이진한 교수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학사일정 _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3월

3. 1.(화)	• 제1학기 시작
3. 2.(수) ~ 3. 8.(화)	•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제2학기 개설 교과목 수요조사	• 동계 계절수업 수요조사
3. 9.(수) ~ 3. 15.(화)	• 하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3. 28.(월)	• 수업일수 1/4선

4월

4. 4.(월) ~ 4. 8.(금)	• 제2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신청
4. 21.(목)	•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수업일수 2/4선
4. 21.(목) ~ 4. 22.(금)	• 제1학기 자율학습일
4. 25.(월) ~ 4. 29.(금)	• 제2학기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

5월

5. 10.(화) ~ 5. 17.(화)	•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5. 18.(수)	• 수업일수 3/4선
5. 30.(월) ~ 6. 17.(금)	•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6월

6. 14.(화)	• 제1학기 종강
6. 15.(수) ~ 6. 21.(화)	• 제1학기 보강기간
6. 15.(수) ~ 8. 31.(수)	• 제2학기 복학(귀) 신청
6. 20.(월) ~ 7. 22.(금)	• 제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6. 22.(수)	• 하계휴가 시작, 하계 계절수업 개강
6. 28.(화)	• 제1학기 성적제출 마감

7월

7. 12.(화)	•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마감 (1/2선)
-----------	-----------------------------

8월

8. 1.(월) ~ 8. 5.(금)	• 2022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 신입생 등록
8. 2.(화)	• 하계 계절수업 종강
8. 9.(화)	• 하계 계절수업 성적제출 마감
8. 9.(화) ~ 8. 17.(수)	• 제2학기 수강신청 (08:30~16:00)
8. 22.(월) ~ 8. 26.(금)	• 제2학기 재학생 등록
8. 29.(월)	• 후기 학위수여식
8. 31.(수)	• 제1학기 종료, 하계휴가 종료

SEES

NEWSLETTER

Vol. 50 | 2022 Spring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 2022년 3월 발행인 | 지구환경과학부장 편집인 | 지구환경과학부 뉴스레터 담당자

발행처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우 08826) Tel. 02-880-6724 Fax. 02-871-3269 E-mail. jychunccc@snu.ac.kr http://sees.snu.ac.kr

디자인 | 꿈인디자인 E-mail. design@kkumin.co.kr